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3. 11. 20

한국산업위생협회

(사)한국산업위생협회 디딤돌 장학금 선정결과

(사) 한국산업위생협회 디딤돌 장학금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장학금 선정결과 (가나다순)

- 1) 김*희 : 대한민국 공군 항공안전단
- 2) 김*이 : 포스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 3) 김*선 : SK 하이닉스 SHE
- 4) 김*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산업보건연구소
- 5) 김*준 : ㈜사람과 환경연구소
- 6) 오*근 : 강원대학교 대학원 수소안전융합학과
- 7) 정* : 연세대학교 의료원

2. 장학금 지급방법

- 1) 장학금 수여식 : 11월 15일 ~ 11월 30일
- 2) 장학금 지급 방법 : 장학증서 + 장학금 100만원
※ 수여식 날짜와 장소 등은 개별 연락

[문의] 발전기금운영위원회 행정간사 양정란 (010-2345-3035, jryang75@gmail.com)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 1) 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 2)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 1) 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 2) 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 3) 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 1) 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 2)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 지원대상 :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 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 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정부·국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27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1100418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서비스업(건물관리업, 음식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에 이어 이번에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816

낮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1.14.(화))
- 공장 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 등 국가핵심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 데크플레이트 등 현장에서 대중화된 공법 관련 현실적 안전기준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낮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4일(화) 공포했다.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2.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들어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하였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80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10104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101045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44호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101058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전년 동기 대비 51명 감소(△10.0%), 50인(억) 미만 중심 감소(△13.3%)

2023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 대비 51명(10.0%), 34건(7.0%) 감소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발생 감소*와 전반적 경기 여건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사고 감소 추세 지속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773

인공지능(AI) 안젤이가 안전뉴스를 전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캐릭터 “안젤이”로 영상뉴스 ... 산재예방 소식 귀에 “쑥쑥”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작년에 발표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뉴스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공단은 인공지능(AI) 전문 업체인 네오사피엔스(주)와 협업하여 자체 캐릭터인 안젤이*를 움직이는 뉴스 아나운서로 재탄생시켜 영상 뉴스를 제작했다. 앞으로 공단은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영상 뉴스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777

고용노동부, 반면교사를 위해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최초 발간

- 지난 사고에서 중대재해 예방의 교훈을 얻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7일(화) 「중대재해 사고 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사례가 담겼다. 그간의 중대재해 자료들이 재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및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백서는 재해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작업 환경, 조직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전 반적 상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한 최초 시도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백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또한, 11월 중으로 일반서점을 통해 언제든지 책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List.do>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

- 11.8.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인 11월 8일에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점검한다.

2023년 9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동기(510명) 대비 10.0%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15명(18.3%)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 특히 사고사망자 수 증가 폭이 큰 120~800억원의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다발하고 있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 추락방지조치인 개구부 덮개 설치,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여부,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수립·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연말까지 건설현장·추락사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초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781

“근로자 건강” 위해 머리 맞댄다!

- 산업안전보건연구원-국립소방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 작업환경분야의 협업 연구체계 구축으로 직종별 근로자 건강보호 추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 김은아)은 11월 8일 11시에 국립소방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연구교류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며 근로자 건강보호 및 업무상 질병예방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협약내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연구 ▲정보교류 ▲장비공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서 근로자 건강보호 및 질병예방을 위한 2개 분야 공동연구를 양 기관의 전문인력이 함께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연 1~2회 연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특수 연구장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양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질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그 밖에도 양 기관 사이에 전문가 자문, 직원교육 등의 인적교류를 통해 연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김은아 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사이에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작업환경분야의 연구의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라면서, “공동연구를 통해 근로자 직종별 건강보호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782

미래 직업 아이디어, ‘빈티지쇼퍼’, ‘마인드컨트롤 장비 안전관리사’ 주목

「제4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및 시상식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1월 9일(목) 15시, 동자아트홀(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제4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다양한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7월 26일(수)부터 9월 12일(화)까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국민이 (948명) 참가하여, 732개의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인천진산과학고 김주한 학생이 제안한 ‘마인드컨트롤 장비 안전관리사’가 선정되었다. ‘마인드컨트롤 장비 안전관리사’는 몸이 불편한 사람의 활동을 돕는 장비가 뇌파의 의지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설계·관리하는 직업으로, 2050년 미래직업의 주제 적합성과 독창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789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10/30, 경북 구미시]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 중 떨어짐
 [11/4, 전북 남원시] 고소작업대와 천장 구조물 사이에 끼임
[\[주요 다발사고\] 10월 달비계 작업 관련 사망사고 4건 발생!](#)
[\[11/7, 광주 북구\] 운행중인 지게차와 부딪힘](#)
 [11/7, 울산 울주군] 콘크리트 가벽 철거 작업 중 넘어지는 가벽에 깔림
 [11/7, 경남 고성군] 설비 설치 후 기존 산업용 로봇과 호환성 확인 중 로봇이 작동하여 끼임
 [11/8, 경기 화성시] 상부 작업대 해체 작업 중 작업대(약 500kg)가 떨어져 맞음
 [10/15, 경북 구미시] 대문 상부 구조물 철거 작업 중 대문이 기울어져 떨어짐
 [11/9, 제주 서귀포시] 시스템 동바리 상부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짐
 [11/9, 인천 연수구] 지붕 교체 작업을 위해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지붕재가 파손되어 떨어짐
 [11/10, 충북 옥천군] 지붕 물받이 교체 공사 중 채광창 밟고 떨어짐
 [11/11, 경북 경산시] 기계 점검 중 롤러에 끼임
 [11/7, 충남 아산시] 천장 등박스 설치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11/12, 강원 정선군\] 작업 중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짐](#)
[\[11/11, 경기 구리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개구부로 떨어짐](#)
 [11/11, 경기 양주시] 원단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원단이 무너지며 깔림
 [11/11, 경북 성주군] 채광창 교체 작업 중 채광창이 파손되어 떨어짐(4m)
 [11/15, 충북 증평군] 지붕 위에서 자재 운반 중 채광창이 파손되며 떨어짐(6m)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2차 사업설명회 안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의 공고에 앞서 2차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수행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일시: '23. 11. 24.(금) 13:00~17:00
 - 장소: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5층 우암홀

- 대상 (※건설업 제외)
 - 2023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사업 수행 기관
 - 2024년 신규 참여 희망 수행기관

- 주요내용
 - '24년 컨설팅 사업개요, 추진일정 및 컨설팅 주요 변경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전파 등

- 기타 안내사항
 - 별도 신청 절차 불필요
 - 1차 설명회(10/30~11/1)와 동일내용으로 진행 예정
 - 주차 장소 협소 또는 유료 주차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위험성평가지원단(052-703-0622)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701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사업 설명회 개최 알림

20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관(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23.11.22.(수) 15:30 ~ 17:30(2시간)
 ※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취업지원 일자리 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
- 장 소 : 대전 kW컨벤션 대관홀 3층(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4번길 13)
- 주요내용
 - '24년도 컨설팅 사업개요, 추진일정 및 컨설팅 사업 주요 변경 사항
 - 컨설팅 대상 건설업체 추천 시 가점부여 등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주요 과업내용 등

첨부 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사업 설명회 개최계획 1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707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산재이후
 오늘 주제는 직업환경의학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산업재해”, 줄여서 ‘산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다치거나 병이 생긴 노동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업무관련성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들의 산재 이후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산재법
 “산업재해”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법)을 통해 이뤄집니다. 물론 근로자의 신분 에 따라서 다른 법을 적용받기도 하지만 근간이 되는 것은 산재법입니다. 산재법 목적은 산재를 겪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37/>

소음성 난청 장애판정, 어떻게 할 것인가 (1부)

탄탄한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보건의 미래

2회에 걸쳐 소음성 난청의 장애판정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소음성 난청 장애판정의 문제를 2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1회 기고에서는 최근 소음성 난청 장애판정에 관한 쟁점을 짚어봅니다. 11월 16일(목)에 전해드릴 2회차 기고에서는 노화와 소음의 복합노출 문제 그리고 연령 보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논제와 관련하여 **2023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대구 EXCO, 11월 25일)**에서 '소음성 난청 장애 판정과 평가 정립을 위한 논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소음성 난청 보상신청의 급증
 전체 사업장의 15.7%, 종사자의 16.0%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음노출수준이 90dB(A)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은 여전히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과반의 근로자가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매년 200~300명 정도가 산재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472명, 2017년 1,051명, 2018년 1,39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2022년에는 5,429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음성 난청 장애급여 청구(접수)건수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14,273건에 이릅니다.

[\[논문\] 소음 노출 사업장의 소음 노출수준과 노출기준 초과율 현황](#)

[\[논문\] 델파이 조사를 통한 직업적 소음 노출 규모의 추정](#)

소음성 난청 인정의 기본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합니다. 물론 노인성 난청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하나,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38/>

"아는 것이 힘이다."
 잉글랜드의 철학자이자 귀납법을 주장한 프랜시스 베이컨은 'knowledge is power'를 이야기했고 현대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모르는게 약이다'가 통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안전보건에서는 예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아는 사람만이 모르는 것을 즐겨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산업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라면, 전문 분야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고, 묻고, 현장을 경험하면서 근로자 보건관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이버 지식백과\] 모르는 게 있다면 길 가는 사람에게라도 물어야 한다](#)

보건관리자 제도의 시작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제 6장에 유해물 취급, 안전위생교육, 질병자의 취업금지, 건강진단 조항이 만들어졌고, 일정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1961년 근로보건관리규칙이 공포되어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의사'로 명시하였고, 5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자 아래에 보건관계 기술사 또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의료업자인 '보건관리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건관리자에 대한 제도는 있었으나, 사업장 내 보건관리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건관리자 제도가 구축되어 시행됩니다.** 1997년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 수가 정해졌는데, 지금까지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되려면,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필수적인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신규와 보수로 나뉘어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논문\] 보건관리자 제도의 발전과 전망, 이복임](#)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39/>